

# 동구청의 과감한 결정...체증 도로 확장 위해 별관 자른다

### 동구청~조선대사거리 교통 혼잡구간 현 4차로서 5차로 확장키로 12월 27일부터 별관 일부 절개...인근 건물 17개동도 철거 돌입

광주시 동구청이 만성 교통체증을 빚는 구청사 앞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과감하게 청사 별관등 일부를 헐어낸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5일에 걸쳐 동구청 별관등 건물 일부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별관동은 연면적 6500여㎡의 지하 1~지상 4층 건물로, 이 중 도로 쪽 건물 측면 2개 호실 분량(7.5m 가량) 1~4층(연면적 756㎡)을 잘라낼 계획이다.

별관동은 옛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실로 쓰인 벽돌조 건물로, 1976년 12월에 지어졌다. 동구가 1996년 청사를 현 위치로 옮기면서 별관동 외벽에 대리석을 덧붙여 지금의 모습이 됐다.

동구는 광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동구청사 앞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해 온 지 5년만에 사전 작업을 시작하자 별관을 절개하기로 결정했다.

도로 확장 공사는 동구청 앞부터 조선대 정문 앞 사거리까지(375m) 현 4차로(폭 20m)를 가변형 5차로(30m)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동구청은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동구청 부지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별관동 일부를 철거해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사무실 재배치 등 불편은 감수하기로 했다.

별관동에는 현재 구청 소속 16개 부서 282명이 근무 중이며 보건소·동구의회·동구 기동대 등도 포함돼 있다. 철거 대상지에는 청경 및 공무직 대기실, 구의원실, 교통상황실, 드림스타트 교실 등이

있다.

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별관동 뒷면에 4층짜리 철골조 부속건물(연면적 548.1㎡)을 증축하고 별관동에 있던 부서를 본관, 부속건물, 구 밴처빌딩(현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본관에는 보건사업과·위생과 등 부서와 드림스타트 교실, 민방위실 등을 배치하고 부속건물에는 발간실, 청경안내실, 교통상황실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구의회와 기동대, 민주평통, 동구장학회 등은 구 밴처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동구는 47년 전 지어진 노후 건물이라 하더라도 철거 작업에 따른 건물물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등급 B등급(양호)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중·개축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철거는 문제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구는 철거 작업 중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줄로 벽체를 두부처럼 잘라내는 '와이어 쏘'(Wire Saw, 줄톱) 공법을 사용하고, 잔존 건물의 하부에 '잭서포트'(Jack Support, 하중 분산을 위한 짧은 기둥)를 설치해 변형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

철거 공사 이후에는 7개월에 걸쳐 별관동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창호, 냉난방시스템, 공기질을 재설치하는 공사다.

동구는 2024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광주시 동구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청사 앞 도로 확장 공사를 계기로 별관동 측면 일부 공간(점선 안)을 철거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하고 각 부서들을 별관동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청사가 좁아 사무공간 부족할 상황이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건물 일부를 헐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도 지난 9월 20일 해체공사

작공 신고를 하고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포함된 동구청 인근 노후 건축물 17개동에 대한 철거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로,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동구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승인을 받

은 뒤 내년 1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도로 확장 공사 착공일은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데 따라 정할 방침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50대 부부에게 염산 뿌리고 도주한 70대 검거

### 무안서...화상 입고 병원 이송

무안에서 50대 부부에게 화학약품을 뿌려 화상을 입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청은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 50대 부부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뿌린 화학약품에 50대 부부는 얼굴과 양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3시간 10여분만에 신

안군 지도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피해자 부부와 낯시를 함께 다니는 등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라고 저 부부에게 사주해서 내가 먼저 염산을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뿌린 화학약품의 성분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무안 군부대 병사 극단선택...가혹행위 의혹 수사

### 전남경찰, 이관 받아 조사 중

무안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무안군의 한 군부대 소속 A상병을 군형법(가혹행위) 위반혐의로 군사경찰로부터 이관받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상병은 분대장이 담당하는 보직 교육 규정을 어기고 B일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 감시 근무 수칙 등을 외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일병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지만 극단적 선택의 원인에 A상병의 정서적 학대가 배제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부대 내 CCTV 영상 분석과 동료 병사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지난 2021년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맡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정신의료기관 환자 안전관리 범위 시설 전체로 확대해야"

###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의견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뿐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이 미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인권위)는 환자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설치된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가 미흡해 부친이 숨졌다'며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측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시설기준 등을 준수했고 사고 장소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과 실의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편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의 '병동 내'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동 시행규칙상 기준을 준수했지만 확인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